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06.30
 슈로더 월지급 아시아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AC459]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위험, 환율 변동위험, 아시아 국가위험,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슈로더 월지급 아시아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합성)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86%	0.70%	0.97%	1.6845%	271	447	629	1,011	2,0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16%	1.00%	1.25%	1.9843%	203	412	628	1,078	2,325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1%	0.35%	0.63%	1.3338%	186	326	472	780	1,6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66%	0.50%	0.85%	1.4835%	152	309	471	814	1,77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 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 0.83% 예상치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 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3.07.02 ~ 24.07.01	22.07.02 ~ 24.07.01	21.07.02 ~ 24.07.01	19.07.02 ~ 24.07.01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2.9.7	8.86	1.03	-3.84	-1.25	2.37
참조지수(%)	2012.9.7	9.45	5.78	-2.10	2.73	4.30
수익률 변동성(%)	2012.9.7	8.04	8.75	8.46	10.35	7.84

- (주1) **참조 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10%**
(참조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락	1973	책임 운용역	40개	12,827억원	6.43	7.84	6.43	5.45	23년

운용전문 인력 ('24.07.01 기준)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환매하지 않더라도 채권투자의 경우 발행자 신용상태의 변화 및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화하여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하이일드 채권등을 편입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인 경우 높은 신용위험과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 부실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행자들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태 악화,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 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p> <p>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p>

주요투자 위험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환매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u>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서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 할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가 등록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배상액은 일괄 회수되어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오류 발생 시기와 배상 시기상의 차이, 그에 따른 적용환율의 차이, 해당 기간동안의 운용역 재량에 따른 일상적인 운용행위 결과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내·외 변수의 영향으로 피투자펀드의 기준가 오류에 따른 투자자의 실제 손실액과 배상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u></p>
<p>국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외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p>월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 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유종목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대량환매 발생, 장기 운용 성과 부진, 분배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월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등은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 분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지급</p>

	<p>중단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관련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매월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이 지급됨에 따라, 월 분배금 지급시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 산정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할 때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명시한 분배금 지급방법에 의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금액으로, 투자시점이 각기 다른 투자자별 수익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났음에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 분배금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해 실제 최종 투자자가 받는 월 분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결정에 앞서 상기의 분배금 및 과세 관련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p>매입 방법</p>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환매 방법</p>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 수수료</p>	<p>없음</p>		
<p>기준가</p>	<p>산정방법</p>	<p>(순자산총액:직전일의 자산총액-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공시장소</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p>	
<p>과세</p>	<p>구분</p> <p>집합투자기구</p> <p>수익자</p>	<p>과세의 주요내용</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p>전환</p>	<p>해당 사항 없음</p>		
<p>집합투자업자</p>	<p>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02-6390-5000, www.schroders.co.kr)</p>		
<p>모집기간</p>	<p>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p>	<p>모집·매출 총액</p>	<p>10조 좌</p>
<p>효력발생일</p>	<p>2024년 8월 7일</p>	<p>존속 기간</p>	<p>정해진 신탁계약</p>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펀드 (I)	5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기관 (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5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chroders.co.kr)
- 수 시 공 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chroders.co.kr)